

## 잠재창업자의 직업 성격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 외식·조리 전공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

김동진·엄태성<sup>¶</sup>·변광인  
영남대학교 식품외식학부<sup>¶</sup>

### Influence of Career Aptitudes of Potential Businessmen on Their Determination to Start Business - Focused on the College Students of Food-service & Culinary Art Departments -

Dong-Jin Kim, Tae-Sung Eum<sup>¶</sup>, Gwang-In Byun  
Dept. of Food Service Industry, Yeungnam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is study pointed out that few studies focuses on potential business manpower in the food-service industry while the food-service industry is quickly growing in the field of business. In this respect, it classified the career aptitudes of potential business manpower into Realistic, Investigative, Artistic, Social, Enterprising, and Conventional according to Holland's(1997) career aptitudes. The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implemented to determine how each career aptitude influences potential business manpower's determination to open a business. As a result, the aptitudes were arranged in the following order, starting with the one contributing to the strongest determination: Enterprising>Realistic>Social>Artistic>Investigative>Conventional. According to Holland's career aptitude classification, people with enterprising characters are generally entrepreneurs,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This study has also proved that enterprising people have the strongest determination to start business.

**Key words** : start business, potential businessmen, career aptitudes, Holland's career aptitude, determination to open a business, venture business training.

#### I. 서 론

현재 창업을 많이 하는 업종 중 한 분야로 외식업종을 들 수 있다. 즉, 2000년도에 식품접객업소 672,343개에서 2004년 753,622개로 증가하였는데(한국외식연감 2006), 이는 IMF 이후 다수 양산된 퇴직자와 실업자들이 여러 유형의 외식 창

업에 뛰어들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서정호 2007). 그러나 이러한 외식 창업 열풍에도 창업의 정찰률을 의미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수는 2005년 720,387개, 2006년 711,006개, 그리고 2007년 706,900개로 2005년 이후로 감소세를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8).

특히 2008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 : 엄태성, 011-511-5262, ets9937@hanmail.net,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영남대학교 식품외식학부

차지하는 비중이 25.5%로 일자리의 1/4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국의 비교 대상 국가들 대부분이 10%대(일본 14.8%, 스페인 14.4%, 영국 12.7%, 핀란드 11.7%)인 것보다 상당히 높은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처럼 창업에서 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다른 업종에 비하여 외식업은 창업 후의 정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외식업에서의 성공 창업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식업에서의 지속적인 창업 활동 증가에 따라 창업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주로 창업자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경력 특성에 대한 연구, 동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예: Gatewood et al. 1995; Chaganti 1986; 김선화 2004; 박대섭 2004; 이요왕 2006; 손홍재 2006; 이선성 2007; 박기오 2007; 이윤재 2007; 이해갑 2007), 이는 창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창업자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연구뿐만 아니라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업자 개인의 성격이나 이들의 적성 등이 창업 의지 혹은 창업에 미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견해는 관련 직업 선택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고향자(1993), 구남희(1997), 박형규(2000) 등의 연구자들은 지향하는 직업 성격에 따라 직업 가치와 진로의사결정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흥미, 능력을 고려한 유형을 찾아 이 유형에 맞게 진로를 설정하고 선택해야지만 직업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격과 외식업과 관련지어 연구되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 하겠다(김두라 외 2007; 이재련 2002).

한편, 창업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기존 창업자

에 대한 연구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잠재 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창업 교육 부분에서 잠재창업자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술한 창업자의 성격, 즉 직업 성격과 창업자와의 관계는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Holland의 직업 성격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 성격 유형에 대한 지향성이 외식업의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증가하고 있는 외식 관련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개인의 직업 성격을 고려한 설계가 도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Holland의 직업 성격

#### 1) 직업 성격의 유형

전술한 바와 같이, Holland(1973; 1985; 1997)는 인간의 흥미가 현실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설득적(enterprising), 관습적(conventional)과 같이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고, 이후 오랫동안의 후속 연구들을 통해 실증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한 6가지의 흥미 유형이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분류체계임을 검증하였다.

Holland(1985)는 현실적(R), 탐구적(I), 예술적(A), 사회적(S), 설득적(E), 관습적(C)의 6가지 유형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가정환경, 학교교육, 개인의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 <Table 1>은 Holland가 제시한 6가지 유형의 특성과 각 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직업을 요약하고 있다. 현실적 유형은 기계에 관심이 많고, 기술적이며, 직선적이며, 고집이 세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으로는 기술자, 정비사 운동선수 등이 있다. 탐구적 유형은 과학적이고 머리가 비상하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Table 1〉 Characteristics of Holland's vocational personality

Personality Type	Characteristic	Vocational
Realistic	Technique, straight line, simplicity, frankness and expense sociable	A technician, a farmer, a pilot and a sports player
Investigative	Scientific, quest, logical, introvert and passive	Scholar, pharmacist and doctor
Artistic	Open and originative, expense coordinated and individual	An artist, a musician, stage director, a writer, a designer, a photographer, a dancer, an actor, and an artist
Social	Kind, gain and loss, amicable, coordinated and idealism	A teacher, social welfare co. Ltd, a nurse, an educator, a religion, and a kindergarten teacher
Enterprising	Persuade, economic, extrovert and optimistic	A businessman, politician, a judge, a manager, a director, and a salesman
Conventional	Repair, plan, adaptable and defensive	A secretary, economic analysis, a banker, a licensed tax accountant, safe supervisor, and a computer progra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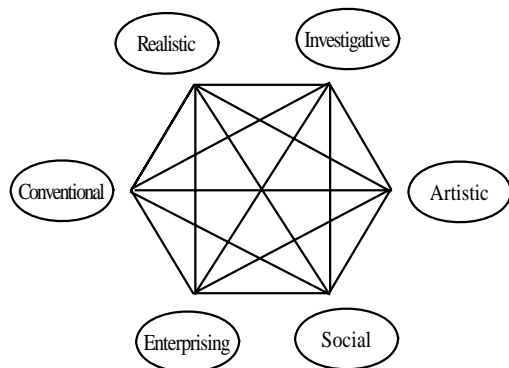
Source: Holland, JL (1992) :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2nd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Researcher summary.

직업으로는 학자, 약사, 의사, 의료기술자 등이 있다. 예술적 유형은 개방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독창적이고, 비협동적이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으로는 예술가, 작곡가, 배우 등이 있다. 사회적 유형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재치 있고 협동적이며, 남을 잘 도와준다. 이러한 유형의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 교육자, 종교지도자 등이 있다. 실득적 유형은 통솔력이 있고 리더 기질이 강하며, 외향적이고, 낙관적이다. 이러한 성격의 직업으로는 기업가, 정치인, 판매사 등이 있다. 관습적 유형은 수리에 강하나 상상력이 적고, 완고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이러한 성격의 직업으로는 공인회계사, 경제 분석가, 은행원 등이 있다.

2) 직업 성격 관계도

1959년에 최초로 직업 성격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제시했던 Holland는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6가지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 체계화하였다. 특히 그는 육각 모형으로 6가지 유형의 관계를 도식화하였는데, 이러한 육각 모형은 특별한 이론적 체계 없이 단순 나열에 불과한 직업 분류체계보다는 개인의 흥미 형태나 직업 간의 심리적 거리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Fig. 1〉에 나타난 각 직업 성격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접한 직업 성격 유형은 서로 유사하나, 멀리 떨어진 직업 성격 유형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인접한 현실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을 보면, 현실적 유형인 기술자, 엔지니어의 경우, 탐구적 유형인 의료기술자, 과학자, 수학자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멀리 떨어진 관습적 유형과 예술적 유형을 보면, 관습적 유형에 속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예술적 유형에 속하는 작곡가, 무용가 등과는 연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 Holland's relationship of occupational characters.

Source: Holland (1992), p. 29.

### 3) 직업 성격의 선행 연구

Holland에 의해 제시된 직업 성격 유형에 대한 검정은 1959년과 1998년 사이에 500편이 넘는 논문, 저서 등을 통해 가설에 대한 연구와 관련 자료의 조직화, 그리고 실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비교적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최동선 1997).

Jagger et al.(1992)은 성격 유형과 직업의 일치성, 직무 만족도 간에 정(+)의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직업 환경이 개인의 성격 유형과 일치하면 할수록 직무 만족도는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Orsak(1987)은 성인 기초 교육자의 경우, 직업 환경과 일치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직무 만족에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정근(1980)은 성격 특성이 직업 선택 및 적응에 좌우하는 간접요인으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정희(1996)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진로 선택 경향 분석에서 개인의 진로 선택 행동을 성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고 진로 교육의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박세영(2002)은 청소년기의 진로 의식 발달 수준과 흥미 유형 및 성격 특성 간의 관계 연구에서 진로 의식 수준에 따라 성격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의 경우, 직업 선택(김종구 2001; 임홍자 2005; 김활수 2006; 김현재 2007), 직업 계획(김인수 2005; 지금숙 2006), 직업 만족(주은영 1996; 박필순 2003; 이순이 2005; 조재광 2005; 서경모 2006) 등의 분야에서 Holland의 직업 성격 유형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 2. 창업

### 1) 창업의 개념

창업에 대한 개념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의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 Schumpeter(1934)는 창업을 새롭게 더욱 나은 일 처리 방법의 창출로 기존의 방법을 파괴하는 창조적 파괴의 힘이라고 했

으며, Timmons(1999)는 창업가, 자원 욕구, 기회 인식이라는 3가지 창업요소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의 가치 창조 활동이라고 정의하였고, Dollinger(2002)는 창업을 위험과 불확실성 상황 아래에서 성장과 이윤을 추구하는 혁신적 경제적 조직체의 탄생이라고 하였으며, McMullan & Long(1983)은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업의 창조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창업단계 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갖게 되는 단계까지를 창업의 전 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창업의 일반적인 견해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정의와는 달리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고 하겠다.

장대성(2006)은 창업을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의 가치 창조 활동이며, 창업에는 첨단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양인숙(2005)은 창업을 미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창업을 “새로이 중소기업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둘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 변경 등 기업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창업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창업자가 영업 추구를 목적으로 기업윤리, 기업이념,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적절한 기회에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 2) 창업자의 특성

창업에 대한 연구에서 창업자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창업자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경력 특성에 대한 연구, 동기적 특성에 대한 연구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Sexton & Bowman 1985; Begley & Boyd 1987; Hofer & Sandberg 1987; Baum 1995; 조형래 1995; 이장우 1998). 결국, 창업 여부는 창업자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되고, 기존의 연구뿐만 아니라 창업자의 성격에 따른 창업 여부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지향하는 직업 성격에 따라 직업 가치와 진로의사결정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흥미, 능력을 고려한 유형을 찾아 그 유형에 맞게 진로를 설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향자 1993; 구남희 1997; 박형규 2000).

## 3. 창업 의지

### 1) 창업 의지의 개념

목표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 통제력(perceived behavioral control) 등 세 가지 핵심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 행동의지는 의사결정자의 주의를 목표행동에 집중시키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로 간주하고 있다(Ajzen & Fishbein 1980). 따라서 창업 의지는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이지우 2000).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Bird 1988). 창업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창업 의지는 새로 설립될 기업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

업 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Bird 1988; Crant 1996).

창업 의지에 대해 정의하면, 위험을 예측, 극복, 감소, 또는 회피하면서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변화의 창조 의지라고 하겠다.

### 2) 창업 의지에 대한 선행 연구

창업자에 의하여 창업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많은 연구에서 창업자를 중요한 창업 의지 결정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창업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창업자의 교육 수준, 가족 배경, 경험, 성취 욕구, 위험 감수 성향, 통제의 소재 등의 심리 특성 및 배경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Smith & Miner 1984; Begley & Boyd 1987; Bird 1988). 그 후 Sexton & Boxman(1985), Begley & Boyd(1987)는 창업자의 성취 욕구, 자율성, 모호성에 대한 인내, 독립성 등이 기업 성과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Hofer & Sandberg(1987)는 창업자의 창업 경험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관련 산업의 경영 경험이 성공적인 창업자의 중요한 특성이며, 창업자의 관련 산업의 경험은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창업자의 심리 특성, 배경 특성과 기업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연구 외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창업자의 행동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Chandler & Jansen 1992). 그러나 창업자의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도 않으며 그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 먼저, Herron & Robinson(1993)는 창업자가 지닌 기술과 동기 부여를 창업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Naffziger & Hornsby & Kuratko(1994)는 비전과 목표, 타인과의 차별성을 창업자의 행동 특성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창업자의 비전은 자기 효율성과 경영 목표 및 이념을 내포하며, 이들 요소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전략적 의사 결정 및 기업 성

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장대성(2003)은 훌륭한 창업가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창업가가 양성될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 배경에서 교육을 통하여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초기에는 창업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창업자의 개인특성, 심리특성, 배경특성 등에 관심을 두다가 점차 동기부여, 기술력, 비전과 목표 등으로 확대되어 창업 교육까지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 1. 조사설계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외식 관련 잠재창업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한국 내 외식 관련학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잠재창업자는 창업을 전제로 하여 배우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을 전제로 배우지는 않지만 기술을 배운 후 창업을 할 수도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외식 관련 기업의 잠재창업자는 외식 관련 대학 재학생 이외에도 다른 대상들이 해당할 수 있으나, 외식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보다 외식 관련 기업의 창업에 관심이 많고 가능성도 크다는 판단 하에 외식 관련 전공 대학생을 자료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자원의 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모든 외식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대학에 소재한 2년제 및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설문지의 구성

##### (1) 직업 성격

본 연구에 사용된 직업 성격 유형은 Holland (1985)에 의해 제시된 6가지 유형(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을 사용하였으며, 안창규(1996)에 의해 정제된 측정척도를 도입하였다 문항 수는 각 요인 당 5문항씩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 (2) 창업 의지

창업 의지는 대상자인 외식 조리 관련학과 잠재창업자들에게서 예상되는 창업에 대한 태도로서, 아니오의 이분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통한 연구로 이론체계를 정리하였다. 실증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직업 성격 유형에 대한 척도를 도출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외식 관련 학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3월에 4주간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는 임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300부를 배부하여 260부가 회수되어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25부를 본 연구의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 Ⅳ. 실증 분석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성별은 225명 중 남자 110명(48.9%), 여자 115명(51.1%)으로 남·여 비율이 비슷하였고, 나이는 20세 미만이 9명(4.0%), 20세 이상이 209명(92.5%)으로 대부분 20세 이상이었으며, 가족 유형은 3인 이하 가족이 104명(46.8%), 4인 가족이 109명(49.1%), 5인 이상대가족이 9명(4.1%)였다.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 원 이하 74명(33.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 Categories		N	(%)
Gender	Male	110	48.9
	Female	115	51.1
Age	≤20	9	4.0
	20≤	209	92.5
Family type	≤3	104	46.8
	4	109	49.1
	5≤	9	4.1
Monthly family income (₩=10,000)	≤100	74	33.8
	101~200	45	20.5
	201~300	42	19.2
	301~400	24	11.0
	401~500	14	6.4
Marital status	501≤	20	9.1
	Married	222	99.1
	Single	2	0.9

101~200만 원 45명(20.5%), 201~300만 원 42명(19.2%), 301~400만 원 24명(11.0%), 401~500만 원 14명(6.4%), 그리고 501만 원 이상 20명(9.1%)이었으며, 결혼 여부는 미혼이 222명(99.1%)이었다.

###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직업 성격 유형에 대한 항목들을 주 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적재량(0.4 이상)을 기준으로 한 정제과정을 통해 총 30개의 변수 중 5개의 변수가 제거되었다. 또한, 고유값(1.0 이상)을 기준으로 한 요인분석 결과 선행 연구들과 같은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 결과, 6개의 모든 요인의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 있는 측정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 3. 직업 성격과 창업 의지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직업 성격 유형과 창업 의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창업할 생각이 있다는 것에 속한 164명의 응답자 중 151명과 창업할 생각이 없다는 것에 속한 62명의 응답자 중 40명이 제대로 분류되었으며, 분류정확도는 84.5%로 나타났다. 탐구적 유형과 관습적 유형의 계수는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수의 값이 크면 내부 값이 1인 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탐구적 유형이고 관습적 유형일수록 창업할 생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술적 유형, 설득적 유형, 사회적 유형, 현실적 유형의 계수는 -로 나타났으며, 예술적 유형과 사회적 유형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각 변수의 값이 크면 내부 값이 0인 집단에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설득적 유형, 현실적 유형일수록 창업 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변수 중 현실적 유형보다는 설득적 유형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득적 유형과 현실적 유형에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설득적 유형, 현실적 유형, 관습적 유형, 탐구적 유형에서 유의성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형 중 설득적 유형과 현실적 유형일수록 창업 의지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관습적 유형과 탐구적 유형일수록 창업 의지가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회적 유형과 예술적 유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 론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Bizcool(Business School; 창업교육기관)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업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직업 성격을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직업 성격과 창업 의지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업 성격 유형 중 창업 의지에 영향력이 가장

〈Table 3〉 Factor analysis and the reliability official approval result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ronbach's $\alpha$	Explanation (%)
Artistic	feels the American sense well from ambient environment.	0.724	5.110	0.839	18.924
	has abundant imaginative power.	0.690			
	has abundant sentiments and is easily impressed by a small thing.	0.674			
	is recognized as a person who has an artistic talent.	0.528			
Enterprising	compares with other people and has desire for possessions and ambition.	0.850	3.859	0.834	14.292
	is suitable for sales and will be able to display an ability in that field.	0.844			
	has wit and makes an outline well.	0.771			
	There are many important decisions from the meeting when I get off.	0.735			
Investigative	tends to analyze.	0.767	2.838	0.810	10.512
	suited to a scholar who are zealous in experiments in the laboratory.	0.701			
	is easy to concentrate on study.	0.648			
	likes a logical discussion.	0.619			
Conventional	thinks plans must be executed.	0.794	2.554	0.737	9.460
	thinks work should be principled and defends it.	0.768			
	does not throw away promises.	0.736			
	does not try to eat or eats little.	0.714			
Social	uses spending money as planned.	0.568	2.218	0.720	8.216
	easily approaches a total stranger.	0.856			
	does well to other people.	0.798			
	considers the poor and helps them.	0.751			
Realistic	has wit making others laugh well and is popular with the others.	0.727	1.402	0.704	5.191
	likes helping other people.	0.650			
	is capable of doing well.	0.774			
	likes playing soccer, basketball etc.	0.735			
	is good at repairing electronics and home appliances.	0.711			
KMO=0.717, Bartlett's(Approximation $\chi^2=3,252.420$ , $p=0.000$ ), Total dispersion explanation: 66.597%					

〈Table 4〉 Classified list

Observation	Prediction value		Classification accuracy(%)
	Determination to open a business: yes or no		
Original value	Yes	No	
Determination to open a business: yes	151	13	92.1
no	22	40	64.5
Total %			84.5

〈Table 5〉 The variable included in equation

Attributes	B	S.E.	Wald	DF	P	Exp(B)
Enterprising	-1.272	0.372	11.659	1	0.001**	0.280
Realistic	-1.040	0.242	18.421	1	0.000***	0.354
Conventional	1.005	0.276	13.231	1	0.000***	2.733
Investigative	0.550	0.224	6.028	1	0.014*	1.734
Social	-0.436	0.353	1.526	1	0.217	0.647
Artistic	-0.393	0.243	2.609	1	0.106	0.675
C	3.065	1.737	3.114	1	0.078	21.433

R<sup>2</sup> : 0.534\*  $p<0.05$ , \*\*  $p<0.01$ , \*\*\*  $p<0.001$ .



높은 유형부터 나열하면, 설득적 유형>현실적 유형>관습적 유형>탐구적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의지가 높을수록 설득적 직업 성격의 유형이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탐구적 유형과 관습적 유형의 경우는 직업 성격이 탐구적이고 관습적일수록 창업 의지는 낮아진다고 하겠다. 이는 탐구적이고 관습적일수록 창업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는 Holland에 의하면 설득적 유형의 직업으로 기업가, 정치가, 관리자 등을 들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창업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이 설득적 유형이었다. 결국, Holland의 직업 성격 분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분석 결과, 직업 성격 유형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 직업 성격 유형별로 각각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설득적 유형, 현실적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와 탐구적 유형, 관습적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 역시 직업 성격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직업 성격 유형이론을 창업과 관련하여 적용·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직업 성격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잠재창업자의 경우, 설득적 유형, 현실적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와 탐구적 유형, 관습적 유형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창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에서 성격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본인의 창업 준비에서도 성격 유형에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정착률이 열악한 외식업에 적용할 경우 조금이라도 정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 한글초록

창업에서 외식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재창업자에 대한 연

구는 일반창업자와 같이 연구되어지며 연구 자체도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먼저, Holland(1997)의 직업 성격에 의거하여 현실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설득적(enterprising), 관습적(conventional)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성격 유형 중 창업 의지에 어느 성격 유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직업 성격 유형 중 창업 의지가 가장 높은 유형부터 나열하면, 설득적 유형>현실적 유형>사회적 유형>예술적 유형>탐구적 유형>관습적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olland의 직업 성격 분류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Holland의 직업 성격 분류에 의하면, 설득적 유형의 직업으로는 기업가, 정치가, 관리자 등을 들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창업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이 설득적 유형이었다. 이는, 창업 교육에 직업 성격을 도입하여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 성격 유형과 창업 의지를 관련변수로 하였다. 다른 연구 변수, 즉 창업 교육과 관련한 연구, 창업성공 결정요인 등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성격 유형에 따른 각각의 성격 유형에 적합한 창업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설득적 유형의 경우는 어떠한 준비점이 필요한지, 관습적 유형의 경우는 어떠한 준비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1. 고향자 (1993) :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 분석 요구.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8(93, 8):57-76.
2. 곽필순·김봉환 (2005) : Holland의 직업 성격과 직업환경의 일치도 및 직무 만족도와 관계 연구. *상당연구* 6(3):837-848.
3. 구남희 (1998) : Holland의 진로유형에 따른

- 진로의사결정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진로상담학회지* 3(1):123-139.
4. 김두라·강재호 (2007) : 외식 산업 종사자의 성격 특성과 직업 선호도와의 관계. *한국조리학회지* 13(4):67-80.
  5. 김선화 (2004) : 실업 유경험 창업자의 창업 의사결정유형 분석. *경기대학교*, 9-27, 서울.
  6. 김인수 (2005) :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의식과 진로계획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4-46, 서울.
  7. 김종구 (2001) :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성격 유형과 진로 선택 경향 분석. *영남대학교*, 7-21, 경산.
  8. 김현재 (2007) : Holland 직업 선택이론에서의 일관도, 일치도, 변별도와 학과 만족도 및 진로 결정도. *단국대학교*, 12-19, 서울.
  9. 김활수 (2006) : 탈북 청소년의 진로 선택 태도에 관한 질적 연구. *부산대학교*, 20-75, 부산.
  10. 문호영 (2007) : 고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직업 가치관의 관계. *부산대학교*, 10-34, 부산.
  11. 박기오 (2007) : 창업 전·후의 소규모 외식업체 성공요인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차이 연구. *세종대학교*, 17-41, 서울.
  12. 박대섭·신충섭 (2006) : 한국 외식 창업자의 특성과 자질이 창업 성공 및 권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경영학회지* 7(1):201-222.
  13. 박세영 (2002) : 청소년기의 진로 의식 발달수준과 흥미 유형 및 성격 특성간의 관계. *여자대학교*, 13-29, 서울.
  14. 박형규 (2000) : 고등학교 학생들의 Holland의 직업적 성격과 직업 가치관과의 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6-23, 부산.
  15. 빈봉식·박정기 (2002)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소기업연구* 24(3):135-158.
  16. 서경모·강혜영 (2006) : 직업 선택과 직무 만족도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천안, 학생생활연구* 10:109-131.
  17. 손홍재 (2006)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5-77, 진주.
  18. 안창규 (1996) : 진로 및 적성 탐색검사의 해석과 활용. *한국가이던스*, 서울.
  19. 안창규 (1996) : 진로탐색검사. *한국가이던스*, 서울,
  20. 양인숙 (2005) : 여성창업의 성공모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지* 3:131-147.
  21. 이선성 (2007) : 소상공 창업의 성공요인과 창업자 특성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3-39, 인천.
  22. 이순이 (2005) : Holland 직업 성격 유형과 지도교과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만족도. *단국대학교*, 16-39, 서울.
  23. 이요왕·강명주 (2006)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연구* 4(1): 1-22.
  24. 이윤재 (2007) : 창업보육기업의 기업가 특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12-58, 천안.
  25. 이은경 (2002) :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 가치 및 진로 의식성숙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19-44, 익산.
  26. 이장우·장수덕 (1998) : 벤처기업 성공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벤처경영연구* 1(2):69-95.
  27. 이재련 (2002) : 패밀리 레스토랑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8(3):21-38.
  28. 이정근 (1988) : 진로지도의 실제. *성원사*, 서울.
  29. 이정희 (1996) : Holland 이론에 의한 우리나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격 유형과 진로 선택 경향 분석. *동국대학교*, 6-16, 서울.
  30. 이지우 (2000) : 개인특성과 창업 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121-146.
  31. 이해갑 (2007) :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문헌적 연구. *호서대학교*, 10-17, 천안.

32. 임홍자 (2005) : 실업계 및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 의식에 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4-20, 서울.
33. 장대성 (2003) : 한국과 미국의 창업 교육 비교를 통한 한국 벤처창업 교육 전략수립.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8(1):129-139.
34. 장대성 (2006) : 창업과 경영. 경기대학교 출판부, 수원.
35. 장효주 (2006) : 호텔 직원의 감정지능, 직업 가치관과 소진 및 서비스지향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58, 서울.
36. 조재광 (2005) : 홀랜드의 직업 성격과 직업 환경의 일치도, 직무 만족도 및 이직의도의 관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7-43, 천안.
37. 조형래 (1995) :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4-34, 대전.
38. 주은영 (1996) : 지방공무원의 직무내용과 직업적성과의 상호 관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7-43, 부산.
39. 지금숙 (2006) : 진로의사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인문계 여고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의사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학교, 4-19, 춘천.
40. 최동선 · 정철영 (1996) : 고등학생의 직업적 성격과 직업 가치관과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15(2): 1-18.
41. 최동선 (1997) : 고등학생의 직업적 성격과 학업성취도, 학교에의 적응, 직업 가치관과의 관계 분석. 서울대학교, 7-24, 서울.
42. Ajzen I · Fishbein M (1980) :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43. Baum JR (1995) :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motivation, strategy, and structure to venture growth.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44. Begley TM · Boyd DP (1987)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79-93.
45. Bird B (1988) :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442-454.
46. Chaganti R (1986) : Management in women-owned enterpri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24(4):18-29.
47. Chandler GN · Jansen E (1992) :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5):391-408.
48. Crant JM (1996) :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 42-49.
49. Dollinger MJ (2002) :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3rd ed., Prentice-Hall.
50. Gatewood EJ · Shaver KG · Gartner WB (1995) : A longitudinal study of cognitive factors influencing start-up behaviors and success at venture cre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0:371-391.
51. Gartner WB (1990) :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entrepreneur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Venturing* 5:15-28.
52. Herron L · Robinson RB (1993) :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281-294.
53. Hofer CW · Sandberg WR (1987) : Improving new venture performance: The role of strategy, industry, and the entrepreneu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1-50.
54. Holland JL (1973) :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55. Holland JL (1985) : *Making Vocational Choices:*

-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56. Holland JL (1997) :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s.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57. Jagger L · Others (1992) : Congruence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chosen occupation as a predictor of job satisfa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6:53-60.
58. McMullan W · Long WA (1983) : An approach to educating entrepreneurs. *The Canadi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2):77-93.
59. Naffziger DW · Hornsby DW · Kuratko DF (1994) :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29-42.
60. Orsak C (1987) : The Holland SDS personality codes for adult basic educators in Texas.
61. Schumpeter JA (1934) :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62. Sexton D · Bowman N (1985) : The entrepreneur: A capable executive and mor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29-140.
63. Smith NR · Miner JB (1983) : Type of entrepreneur, type of firms, and managerial motivation: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life cycle theo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4:325-340.
64. Tiedeman DV · O'Hara RP (1963) :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65. Vesper KH (1980) :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2008년 10월 16일 접수  
 2008년 12월 1일 1차 논문수정  
 2009년 1월 5일 2차 논문수정  
 2009년 3월 4일 3차 논문수정  
 2009년 3월 20일 게재확정